

# 감동 통해 배우는 성공의 지혜

독서 동기와 경향 · 부모와 함께하는 '마시멜로 찾기'

글\_윤태형 청소년 영자신문 영타임즈 편집국장

21세기 한국의 가정을 특징지을 수 있는 단어 중 하나는 대화의 단절일 것이다. 매년 가정의 달이 되면 “가족 간 대화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신문 지상을 장식한다. 우리 집은 대화가 끊어진 다른 집과는 다르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자주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 될 만한 이야기를 해 주었던 가를 반성해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는 게 현실이다. 자녀를 둔 많은 가정들이 성공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어색해진 집안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마시멜로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조용히 건네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책이다.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해선 ‘일반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99%의 감동’과 ‘독자들에게 부족한 1%를 메울 수 있는 교훈’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마시멜로 이야기는 분명 성공을 거두고 있다.

우선, 이 책의 주인공은 위대한 성인(聖人)이 아닌 평범한 운전사인데, 이 점이 독자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낸다. 마시멜로 이야기는 오늘의 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운전자 찰리가 마시멜로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대학 입학이라는 작은 성취를 얻어내는 과정을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몽클하게 그리고 있다. 또한, 이 책은 독자에게 현실의 유혹을 극복하는 인내와 강한 실천력을 갖출 때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설득력 있게 호소한다. 마시멜로 이야기는 공부에 지치고 공부 때문에 좌절하며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인내와 작은 실천, 희망의 가치를 감동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누구나 어린 시절 큰 꿈을 가졌던 기억이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유혹을 참고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의 고민은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 그 꿈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오늘의 유혹을 뿌리치며 공부에 매달려야 하는 현실이다.

미래의 마시멜로가 입안을 단맛으로 부드럽게 녹이는 멋진 과자라는 사실을 대충 알지만 그 마시멜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멋진 마시멜로를 손에 넣을 수 있는지, 오늘을 참으면 내일엔 두 배의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는지 등을 아이들은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우리 아이들의 불만은 아마도 오늘 마시멜로를 참는다고 해서 미래의 마시멜로를 보장받을 수 없는 불안감일 것이다. 아마도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 마시멜로를 먹어 치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마시멜로 이야기》가 단순한 흥미 거리를 넘어서 아이들의 변화를 이끄는 실천서가 되기 위해선 아이들에게 미래의 가능성을 찾아 주는 어른들의 노력이 중요하다.

마시멜로는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오늘 참으면 내일 더 많은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는지 등을 아이들과 같이 고민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이 책은 기껏해야 아이들에게 “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또 하나의 잔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마시멜로 이야기는 부모의 잔소리로 무시될 수 있는 인내의 가치와 성공의 교훈을 잔잔한 감동을 통해 아이들 가슴 깊이 전달하는 뛰어난 작품이다. 이 책은 또한 성공을 주제로 부모 자식 간에 오랜만에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매개체로서도 좋다. 그러나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변화를 이끄는 최고의 인생 지침서가 되기 위해선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작품의 완성성은 작가가 아니라 독자인 셈이다. ★★